

소아 투명교정, 나도 할 수 있다. !!!

(소아 투명교정치료의 다양한 임상 증례 :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문 상 진 / 용인쥬니어치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란 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아교정을 하고 보니 소아교정에 참으로 적합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24년 전 저를 소아치과에 뽑아주신 당시 과장님께서서는 미국에서 교정 수련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아치과임에도 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아이의 세팔로 트레이싱과 가철성 장치의 제작, wire bending 등을 하였고, 소아 성장기 교정 및 Fixed 교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국의 주된 논문 시리즈도 한국 아이들의 골격 패턴과 안모와의 연관성이나 성장에 따른 안모와 골격의 변화나 특징에 관한 것이었기에, 저의 첫 학회 발표 주제도 손가락 빨기로 인한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아동의 치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치열의 배열이나 공간확보보다는 안모와 골격에 치중된 소아교정을 하는 이유가 그때 몸에 밴 습관이 아닐까 합니다.

18년 전, 용인시 처인구에서 소아치과를 개원하여, 현재까지 소아교정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협조적인 아이과 보호자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교육해도 장치를 잘 안 끼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아교정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저의 탓이 되어 버리고, 좋은 임상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긴 유지 기간 협조가 잘 안 되어 힘들게 얻은 좋은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상담의 어려움 등등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들을 위해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소아교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초기 소아교정은 악궁 확장을 통한 치아의 배열에만 초점을 맞춘 초보적이고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임상증례가 쌓여가고, 소아교정의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만 8~9세의 초기 혼합치열기에 시작한 아이들의 1차 소아교정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끈질긴 정기 검진을 진행하였고, 긴 유지 기간에도 유지장치를 완벽히 착용시키고, 철저하고 디테일한 공간감리를 해주면서, MFT 및 근기능장치를 사용하여 관리해 주었습니다. 7번 치아까지 모든 영구치가 맹출되어 모든 교합이 형성되고, 악골의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한 결과, 그렇게 심하고 부조화스럽던 아이의 부정교합이 정상에 가깝게 개선되고, 수정되는 상황들을 빈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지속되고, 빈번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우연이 아닌 소아교정의 결과로 시작된 신비스럽고 놀라운 인체의 회복력과 자연 치유력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유전적이든 후천적인 환경이든 이를 소아교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제거하고,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아이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준다면 인체의 회복력과 자연 치유력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조화로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교정을 통해 모든 증례가 치열이나 골격이 근본적이고 완벽하게 정상 교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 1) 악궁을 확장하여 정상 폭경을 형성하고 구치부 교합을 정상화하고
- 2) 전치부 치열을 가지런하게 배열, 정상 수직, 수평피개를 형성해주고
- 3) 상, 하악골의 수평적, 수직적 부조화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고

4) 부정교합을 야기한 원인이나 구강 악습관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주면

부적절한 호흡과 연하 방식 및 구강주위 근골격계의 비정상적인 성장 방향을 좀 더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구강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소아교정이라면, 현 상태의 안모와 치열과 골격이 비록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점차 아름다운 미소와 얼굴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이의 인성 및 인생 전반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진 소아교정을 기존의 가철성 장치, 악정형 장치 및 교정용 와이어와 브라켓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자는 2016년부터 기공소와 함께 소아를 대상으로 Clear Aligner를 이용한 투명교정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에 성인에게만 적용이 되던 구강 스캐너와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투명교정치료가 2019년에 4월 소아에도 적용이 되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술하여 현재 소아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280개의 증례를 시술하였습니다.

이번 학술강연에서는 소아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의 결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증례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원장님이 소아 투명교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력 및 경력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 * 대한 소아치과학회(KAPD) 대외 협력 이사
- * KJCD(치과계) 소아치과 파트 필진
- * Invisalign BLACK Diamond Tier User
- * Invisalign Official Speaker
- * 현, 용인쥬니어 치과의원 대표원장